

무실점 본능, 이호민… 위기의 KIA 불펜 기대감

성영탁 이어 ‘미스터 제로’
최근 2.2이닝 무실점 행진
강타자 상대 뺀어난 제구력
중간·선발 다 가능 ‘만능 신인’



KIA 타이거즈의 신예 투수들이 연일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며 흔들리던 팀 불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17.1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는 성영탁에 이어 이호민이 ‘미스터 제로’ 계보를 잇고, 위기의 순간마다 마운드에서 빛을 발하며 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불펜진 부상과 피로 누적 등 매 경기 필승조를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속에 이호민은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다.

이호민은 24일 오전 현재 1군 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지난 17일 KT전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른 이후, 위기 상황에서도 신인답지 않게 침착한 투구로 타자들을 제압하며 성영탁에 이어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특히 불펜 난조와 주축 선수 이탈이라는 KIA의 고민 속에서 이호민의 안정적인 피칭은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데뷔전은 지난 17일 KT와의 홈 경기였

다. 팀이 10-2로 크게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첫 시험대에 올랐다. 선두타자 안현민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어진 중심타선을 뜯고, 삼진, 뜯공으로 처리하며 깔끔히 경기를 마무리했다. 데뷔전에서의 안정적인 투구는 곧바로 기회를 부여받는 계기가 됐다. 21일 SSG전에서는 연장 11회말, 단 한 점만 내줘도 끝나는 무사 1루의 위기에서 등판해 오태곤을 뜯공으로 잡아낸 뒤 에레디아를 고의사구로 내보냈다. 이어 SSG의 4번 타자 한유섭을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하며 대범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22일 경기에서도 그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7회말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이 역전을 허용하며 분위기가 SSG로 넘어가던 그 순간, 마운드에 올라 2명의 주자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팀의 흐름을 다시 잡았다. 이 경기에서 그는 데뷔 첫 승을 기록하며 ‘믿고 쓰는 불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주고 출신의 우완 투수 이호민은 2025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고교 시절 73이닝 동안 24사구, 평균자책점 1.36을 기록하며 봉황대기, 청룡기, 전국체전을 모두 석권한 팀의 에이스였고 청소년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린 특급 유망주였다. 올

시즌 퓨처스리그(2군)에서 선발과 불펜을 두루 경험하며 실전 감각을 쌓은 뒤 1군에 콜업됐고, 이범호 감독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중심타선을 상대로도 스트라이크를 잘 던졌다. 중간계투로 요긴하게 쓸 수 있고, 2군에서 선발 경험이 있기에 선발 자원이 필요할 때도 준비가 가능하다. 로하스를 변화구로 삼진 잡을 정도면 경기 운영 능력이 충분하다. 아직 어린 만큼 힘이 더 붙으면 더 좋은 투수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호민은 첫 등판 당시 긴장하나 머지 상대 타자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막상 마운드에 오르니 연습한 대로 가운데를 보고 던지자는 생각만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포수 한준수의 “마음껏 던지고 내려와라”는 말도 큰 힘이 됐다. 이호민은 “처음 마운드에 오를 때는 엄청 떨렸는데, 팬분들의 응원과 함성이 들리니 오히려 떨림이 사라지

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 KIA에서 긴 이닝을 책임지는 선발 투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현기 기자



성영탁

이호민

광주FC 아사니, K리그1 20라운드 베스트11

프로축구 광주FC의 아사니(사진)가 K리그1 20라운드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아사니는 24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주간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다.

광주는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광주 골키퍼 노희동의 아쉬운 실수로 경기는 무승부가 됐지만, 이날 아사니는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후반 10분 헤이스가 측면 돌파에 이어 건네준 패스를 아사니가 받았고 이를 왼발 논스톱 슈트



로 이으면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26분에도 아사니는 뒷 공간을 보고 스루패스를 찔러 넣었고 박인혁이 예리한 슈팅으로 마무리했

다.

연맹은 주간베스트 11에 포항 스틸러스 조르지, 대전하나시티즌 구백, 강원 FC 모재현(이상 공격수 부문), 전북현대 모터스 송민규, 김천상무FC 이승원, 강원 이상현, 광주 아사니(이상 미드필더 부문), 포항 박승욱·전민광, 강원 강투지(이상 수비수 부문), 강원 박정호(골키퍼 부문)를 각각 선정했다.

민현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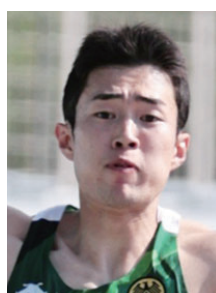
‘곡성 출신’ 김장우, 세단뛰기 16년만에 韓 기록 경신

전국육상선수권 17m13 대기록
광주시청 고승환, 육상 200m 금

곡성에서 태어나 옥과초-전남체중-전남체고를 나온 김장우(25·국군체육부대·사진)가 16년 만에 남자 세단뛰기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썼다.

김장우는 지난 23일 강원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17m13을 기록해 2009년 김덕현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17m10)을 3cm 넘어섰다.

김장우는 5차 시기에서 16m92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뒤, 마지막 6차 시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환호를 자아



냈다. 김장우는 경기 후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후배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뿌듯하다. 앞으로 세

계선수권 기준 기록(17m22)도 넘어 도쿄 무대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종일 국가대표 수석 도약 총감독은 “날씨와 바람이 잘 맞아떨어져 좋은 결과가 나왔다. 김장우와 유규민이 함께 세계 선수권에 출전해 한국 세단뛰기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장우의 라이벌 유규민(용인시

청)은 16m70으로 2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청 고승환은 24일 남자 200m 결선에서 20초73으로 결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고승환은 앞서 전날 200m 준결선에서 20초45로 개인 최고 기록을 작성하며 전체 1위로 결선에 오르며 이날 한국 기록 경신을 기대해 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고승환의 20초45는 지난해 6월 26일 전국선수권에서 작성한 20초49를 0.04초 당긴 자신의 최고 기록이다. 또 박태건(2018년·20초40), 장재근(1985년·20초41)에 이어 한국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최동환 기자

이민지, 여자골프 세계랭킹 6위

18계단 상승… 1년만 ‘톱10’ 복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민지(사진)가 1년 만에 세계랭킹 10위 이내에 복귀하며 존재감을 뽐냈다.

이민지는 24일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24위에서 18계단 상승한 6위에 올랐다.

그는 한 때 세계랭킹 2위까지 올랐지만 작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공동 24위로 마친 뒤 세계랭킹 10위에서 11위로 떨어져 줄곧 10위밖에 머물러 왔다. 특히 블랙데저트 챔피언십에서 기권하면서 20위 밖으로 나갔던 이민지는 이번 우승으로 다시 최정상급의 면모를 되찾은 셈이다.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잔네티 완나센(태국)과 오스틴 김(미국)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완나센은 29계단이나 뛰어 29위가 됐고, 오스틴 김은 97위에서 49위로 올랐다. 유해란(5위), 김효주(9위), 고진영(15위), 최혜진(24위) 등 한국 선수랭킹은 큰 변동이 없었고 넬리 코르다(미국), 지노 티파쿰(태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인휘닝(중국) 등 1~4위도 그대로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더해븐 마스터즈에서 우승한 노승희는 13계단 상승해 63위로 올라왔다.

민현기 기자연합뉴스

동일미래과학고 박솔민, 회장배 전국학생스쿼시선수권 우승

시즌 5관왕… 복식전도 은메달

광주 동일미래과학고 박솔민(2년·사진)이 제22회 회장배 전국학생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5관왕을 달성했다.

박솔민은 지난 19-22일 울산 문수스쿼시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18세 이하부 개인전 결승에서 서예은(산본고)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정상에 섰다.

박솔민은 이번 대회에서도 단 1세트도 내주지 않고 퍼펙트 우승을 차지했다.

부전승으로 32강을 통과한 박솔민은 16강서 강연아(오남고)를 3-0(11-5 11-4 11-2)으로, 8강서 라우림(대구여고)을 3-0(11-1 11-4 11-3)으로, 준결승서 김태연(인천시스쿼시연맹)을 3-0(11-4 11-9 11-5)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



다. 박솔민은 결승서 서예은을 만났지만 상대의 부상 기권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박솔민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시즌 5개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는 앞서 제5회 태산배 전국스쿼시 선수권대회(3월)와 제2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4월), 제19회 회장배(전북)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4월), 제25회 회장배 전국 한국 스쿼시 선수권대회(6월)에서도 우승했다.

박솔민은 “김가혜(광주시체육회) 선배의 성실한 훈련 모습을 본 받으라는 오민재 감독님의 조언에 따라 열심히 훈련한

결과인 것 같다”며 “7월 1-5일 경북 김천에서 아시아주니어스쿼시선수권대회에 청소년 대표로 출전하는데 좋은 성적으로 광주와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솔민은 김태영(동일미래과학고 2년)과 호흡을 맞춘 여자 18세이하부 복식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솔민-김태영 조는 결승에서 김태연-이수현(이상 인천시스쿼시연맹)에 1-2(11-9 6-11 8-11)로 졌다.

광주 화정중 문하람(3년)은 여자 15세 이하부 개인전 결승에서 이혜인(연성중)에 0-3(8-11 6-11 1-11)으로 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일미래과학고 서한규(2년)와 박은찬(3년)은 리그전으로 치른 18세이하부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동환 기자